

- 25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8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돋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29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30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31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

- 13**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
 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8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9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11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3장 요약정리

본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하다. 첫째, 사랑의 절대가치와 절대필요성을 언급함. 둘째, 아가페 사랑의 다양한 모습을 제시함. 셋째, 사랑의 절대 우위성과 영원성을 설명하면서 특히 바울은 사랑함에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13:1 사랑

1. 문자적으로는 아끼고 위하고 한없이 베푸는 이타적인 마음이나 행위, 또는 다른 사람의 안녕에 대한 호의적인 관심을 말한다.
2. 본 절의 사랑(헬, 아가페)은 마음에서 조건 없이 베푸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한다.

13:2 예언하는 능력

하나님의 뜻과 같은 깊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대안하고 알게 하는 것을 말한다.

13:4 온유하며

실천적인 행동을 가리킨다. 즉 부드럽고 인자하며 친절하면서도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